재미 한국인 빈곤율 높다

뉴욕 등 평균치 웃돌아

프린터

한국계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아시아계 다른 인종보다 교육수준도 떨어지고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교육봉사단체 한미연합회(KAC) 센서스정보센터(소장 유의영)가 4일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민 1세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전체의 48.9%에 불과해 대만(73.9%)과 인도(68.1%), 일본(54%) 등 다른 아시아계 수준을 밑돌았다. 이는 특히 아시아계 이민 1세 평균 50.1%에도 미치지 못해 한국계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상 인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직업별 분류에서도 한국계 자영업 종사자는 뉴욕의 경우 12.8%로 전체 평균 6.2%를 크게 웃돈 반면 공무원은 6.7%에 불과해 주류사회 편입비율이 저조했다.

가구당 연간 소득에서도 뉴저지주의 경우 한국계는 5만3천502달러로 필리핀 8만946달러,중국 8만518달러,베트남 5만4천745달러 등 아시아계 평균치 7만2천224달러에도 못미친 반면 빈곤율은 백인과 흑인,라틴계 등 전 인종을 망라한 평균치보다 높았다.

유의영 센서스정보센터 소장은 '공직 기피와 자영업 의존으로 나타나듯 주류사회 진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점과 명문 대학만을 고집해 2세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입력시간: 2003. 06.05. 11:25

Copyright (c)1995-2003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he WebMaster:
webmaster@busanilbo.com